「언어연구」, 제22권 제2호(2005), 1～22

# 온라인 채팅에 나타난 구어적 특성과 차이점*

강우순
(경희대학교)

**Kang, Woosoon. 2005. Spoken Properties of On-Line Chat and Differences from the Spoken Language.** *Linguistic Research* 22.2, 1-22. There has been a lot of literature about written expressions of the on-line chat: how lexical items are distorted and what kind of new expressions are used. This paper focuses on the spoken properties of the on-line chat, examining 118 cases of 33 persons. To this end, the data we use are one-to-one chat without anonymity. The on-line chat has multiple properties such as spoken from simultaneity, written from typing messages, and computer-mediated from using computers. We found out spoken properties by analysing the data by means of speech acts and phenomena shown in the on-line chat. The speech acts used in the paper are chat openings, questions and answers, requests, repairs, and chat closings. The phenomena particularly shown in the on-line chat are discourse topic ellipses, silences, using pronouns and dietics, repetitions, and code switchings. Although we could not have clear-cut identifying properties of the on-line chat, it has a significant use of spoken properties. **(Kyung Hee University)**

**Keywords** on-line chat, spoken properties, speech act, discourse topic ellipsis

## 1. 서론

한국처럼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한 나라는 없다고들 한다.[1] 따라서 그에 따른 언어적 파장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시조나 시를 번역하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다.[2] 심지어 일상생활에서도 인터넷 용어를 쓰는 경우가 젊은 사람들 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의 삶

* 이 논문은 BK 21의 지원을 받은 논문이며, 2005년 대한언어학회와 한국현대언어학회가 공동개최한 가을학술 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이다. 참석한 선생님들의 조언으로 논문을 수정 보충하였다. 선생님들의 조언에 감사드린다.

[1] 디지털 타임즈에 의하면 한국이 4년 연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2] 한용운의 "님의 침묵"과 이적의 "까마귀 검다하고" 등이 인터넷 언어로 번역되어 널리 알려진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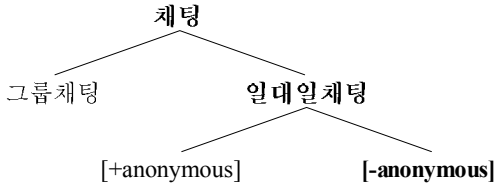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인터넷 언어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3] 따라서 인터넷 용어나 언어에 대한 문자적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구어적 특성에 대해서는 연구되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채팅에 나타나는 구어적 특성과 구어와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범위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CMC)[4]의 범위는 너무나 광범위하다. 컴퓨터를 사용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컴퓨터 상거래, 전자법, 넷으로 공부하는 것, 인터넷 잡지 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 Crystal(2001)은 넷언어(Netspeak)를 네 가지 종류로 나누었다. 웹(Web)과 이메일(e-mail), 챗그룹(Chatgroup), 그리고 가상세계(Virtual World)이다.

이 논문에서는 연구 범위를 축소해서 실시간 채팅을 분석 자료로 삼았다. 인터넷의 중요한 특징인 익명성을 배제한 것도 또한 구어적 특성을 더 잘 포착하기 위해서이다. MSN 메신저와 NateOn에서 한 채팅 자료를 수집했다. 그리고 일대일 채팅에 한하였다. 33명의 118개의 채팅을 모아 분석하였다.[5]

(1)




[3] 구현정(2002), 권연진(2003), 박동근(2002, 2003) 등의 연구가 그것이다. 인터넷 용어 사전도 나와 있을 정도이다. 담화에 대한 연구는 송경숙(2001, 2002a,b)에 상세히 다루어져 있다.

[4] Susan Herring(1996:1)은 CMC를 컴퓨터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이라고 정의하였다. (CMC is communication that takes place between human beings via the instrumentality of computers.)

[5] 남자 6명, 여자 27명이며 남자 대 남자 대화는 36개, 남자 대 여자의 대화는 18개 여자 대 여자의 대화는 64개이다. 연령은 20대에서 30대이다. 수집 방법은 채팅한 것을 저장해서 인쇄해서 수집하거나 파일로 저장해서 전송하는 방식을 취했다. MSN 메신저의 경우 시간까지 나와 있어서 특히 침묵을 분석할 때 용이했다. 발표시 연령층을 더 구별하여 그 연령층만을 대상으로 논문을 쓰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조언이 있었다.

이 논문의 분석 자료는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채팅 중에서도 일대일 채팅이며 익명성을 배제한 자료이다.

## 3. 선행연구

한국어 온라인 용어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언어학적 관점과 문화적 관점, 계도적 관점에서 연구가 된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인터넷 상에 나타나는 언어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밝히고, 그것의 생산성과 또 어미 등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는 가에 관한 음운론적인 분석도 있었다. 담화의 단계에서 영어의 채팅을 살핀 논문에서는 대화 원리를 적용해 분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문화적 관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과 언어유희로 설명한 논문도 있었으며, 인터넷 언어를 순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아울러 어떻게 하면 순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에 관한 논문도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

| 언어학적 관점 | | 문화적 관점 | 계도적 관점 |
|---|---|---|---|
| 어휘 | 담화 | | |
| 구현정(2002), 권연진(2003), 박동근(2002, 2003), Baik(1998) | 송경숙 (2001, 2002a, b), Song(2003) | 강옥미(2004), 구현정(2001) | 김성규(2003), 노형남(2000), 조동욱・이현경 (2003) |

## 4. 온라인 채팅의 구어적 특성과 차이점

온라인 채팅의 구어적 특성을 살피기 위해서 구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온라인 채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성을 중심으로 이 단락을 살피고자 한다.

대화는 화행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6] 4.1에서는 화행을 중심으로 살피고, 4.2에서는 온라인 채팅에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겠다.

---

[6] Finegan(1994:345)에 보면 대화는 화행의 연속으로 볼 수 있으며 그 화행에는 인사하기, 묻기, 축하하기, 평가하기, 초대하기, 요청하기, 거절, 비난, 부인, 약속, 작별 등이라고 하고 있다 (A conversation can be viewed as a series of speech acts- greetings, inquiries, congratulations, comments, invitations, requests, refusals, accusations, denials, promises, farewells.).

### 4.1 화행

이 절에서 살펴볼 화행은 채팅 열기, 인접쌍, 고치기, 채팅 닫기 등이다. 각각을 살피면서 채팅에서 나타나는 구어적 특성과 구어와는 다른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4.1.1 채팅 열기

대부분의 경우 대화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름이나 호칭으로 시작하였다.

(3) 혜원아.../ 선배님.../ 선생님/ 샘/ 언니/ 언냐

(3)에서 볼 수 있듯이 이름이나, 호칭 등을 사용하는 것은 구어와 차이점이 없다고 할 수 있다.[7]

다음의 경우는 일반적인 대화와는 차이를 보이는 예들이다.

(4) a. 아.. 잠온다.. --;/ 저 우체국 좀 다녀올께용, 저겨 저 이창 비밀번호 모르겠어요../ 하이~/ 업뎃 정말 안되네요
b. 들어와 있니?
c. 하이요 ㅋㅋ
d. 어디가 아픈 거야?

(4a)의 경우는 직무상 항상 채팅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호칭으로 인사를 시작하기 보다는 업무나 자기의 상태 등을 밝히고 있다. (4b)의 경우는 컴퓨터는 커져 있으나 실제로 그 앞에 앉아 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지를 확인함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4c)는 인터넷 채팅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인사이다. (4d)는 채팅창에 자신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아이디 옆에 아프다고 쓴 것을 보고 이렇게 바로 물어본

[7] 호칭으로 채팅을 시작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여자이다. 남자의 경우는 호칭으로 시작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격식(ritual)을 차린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이나 유사성을 논하는 논문이 아니므로 이것에 대해 더 논의하지 않겠다. 송경숙(2003)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을 논하고 있다 호칭을 이름으로 부를 경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나이였다. 하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존대를 하거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이가 절대적인 요소라고는 할 수 없다.

것이다. 일반 대화에서는 상대방의 표정이나 얼굴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채팅에서는 쓴 것을 보고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와는 다른 경우가 있다. 상태가 바뀌면 바꾸어야 하는데 잊어버리거나 귀찮은 것 등의 이유로 바꾸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5)

| [시계] | 넌 어디가 아픈거야? |
|---|---|
| (혜영)아프다.... | ㅎㅎㅎ |
| (혜영)아프다.... | 많이 좋아졌어요.. |
| (혜영)아프다.... | 닉네임 바꿔야 겠다. |

(5)에서 볼 수 있듯이 대화명을 보고 [시계]가 상대방이 아픈 것으로 알고 대화를 시작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채팅 열기에서는 일반대화와 유사하게 호칭이나 이름으로 시작하지만 상대방과의 관계나 컴퓨터라는 매개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한 구어와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 4.1.2 인접쌍

인접쌍으로 살펴 볼 것은 질문과 대답, 요청 등이다.

#### 4.1.2.1 질문과 대답

질문과 대답은 인접쌍의 대표적인 예이다. 대화에서는 질문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상대방의 반응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예는 다음의 예에서 볼 수 있다.

(6) a. A: 무슨 회의 했어요?
B: 음... 잘 몰겠어요.
b. A: 뭐 문제있나요?
B: 저 잘 모르는데 사고나면 안되니까 영훈 씨가 모니터링 마니 해주세요...

(6a,b)에 나타나는 채팅 대화를 보면 질문 다음에 바로 대답이 나오는 경우이다. 우리가 흔히 구어의 대화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질문 대답 사이에 질문 대답이 끼여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도 일반적인 구어에 나타나는 것이다.

(7) A: 쿼리줘유 (a)
B: 무슨? (b)
A: 회원이메일이요.
B: 그럼 엑셀파일을 달라고 해야죠. -_-

(7a)의 질문 대답 사이에 (7b)가 끼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구어와 비슷한 질문 대답의 형식을 진행하는 경우는 인터넷에 익숙하고 타자가 빠르며 항상 상대방과 채팅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이다. 대화와는 달리 채팅에서는 한 사람이 계속 질문하거나 아니면 동시에 두 사람이 같이 질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답도 즉각 나타나기 보다는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의 경우는 한 사람이 계속 질문하는 경우이다.

(8) A: 학교는 다 정한겨?
A: 내일 와도돼?
(a) A: 회사는? (b)
B: 허락받고
B: 그냥 일곱군데
A: 그려

(8)에서는 A가 계속 질문하고 B는 그 질문에 따라서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8)에서의 질문 대답의 순서는 가장 최근에 해당하는 질문에 대해 먼저 답한 것을 볼 수 있다. (8b)가 하나의 인접쌍을 이루고 (8a)가 또 다른 인접쌍을 이룬다.

다음의 예는 동시에 메시지를 전송해서 질문과 대답이 엇갈리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가 채팅에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9) A: 잘지내?
(a) B: 이시간에 있는 사람은 언니뿐이당.. (b)
이시간에 자주 들어와?
B: 어 잘지내..언닌.. A: 요즘
A: 들어와 [ ]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질문에 대한 늦은 반응이 더 자주 나타난다. 타자가 느리거나 자기가 치는 것에만 집중하거나 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더 많다.

온라인 채팅에서는 상대방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살필 수 없기 때문에 질문에 있어 주관적이기 쉽다. 컴퓨터에 익숙한 사람과 항상 대화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흔하지 않다.

#### 4.1.2.2 요청

요청에 대한 승낙과 거절도 대표적인 인접쌍의 예이다. 대화에서와 마찬가지로 요청에 대한 승낙은 빠른 반응을 가져오는 반면, 거절의 경우 여러 차례의 대화가 오가고 나서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의 예는 단번에 승낙하는 예이다.

(10) A: 저 우체국좀 다녀올께용
A: 누가 찾으면 말씀좀 해주세용
B: 넵..

(10)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A의 요청에 대해 B의 즉각적인 반응을 볼 수 있다. 반면 거절의 경우에는 몇 번의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11)

| | | |
|---|---|---|
| A1 | 글고 오늘 | |
| A2 | 전 | |
| A3 | 걷고걷고 | |
| A4 | 또 걷고 | |
| A5 | 또 걸어서 | |

| | | |
|---|---|---|
| A6 | 교보문고가는데 | |
| A7 | 혹시 생각있으세요? | <요청> |
| B1 | 음.. 같이 동행하고 싶습니다. | |
| B2 | 그러나.. | |
| A8 | 반전 | |
| A9 | -_- | |
| B2 | 전 오늘 예배하러 가야합니다. | <거절> |
| A10 | 반전 -.-;; | |
| A11 | 그말할줄 알았어요. 흥~ | |

거절의 경우 직접적으로 거절하기보다는 같이 하고 싶지만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이므로 거절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8] A가 A1에서 A7에 걸쳐서 같이 가자고 요청하고 있으며 B는 B1에서 같이 동행하고 싶지만 이유가 있어서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요청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절도 어려운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의 경우는 요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거절하고 승낙하는 경우이다.

(12)

| | | |
|---|---|---|
| A1 | 있다가 밥 시킬 때 저도 시켜줘여 | ＜요청＞ |
| B1 | 싫어요 | ＜거절＞ |
| B2 | ㅋㅋㅋ | |
| B3 | 넹 | ＜승낙＞ |
| A4 | ㅎㅎ 넹. | |

(12)는 거절했다가 승낙하는 경우인데 서로의 유대관계가 좋을 때 보이는 것이다.[9]

인접쌍에서 질문과 대답의 경우는 일반 구어와 차이점을 보이는 반면 요청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다. 질문은 화자 중심인 반면에 요

[8] 인터넷 채팅의 특징 중 하나로 한 사람이 한 문장을 단번에 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나눠서 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인터넷에 익숙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기다리는 것을 배려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치는 것을 볼 수 있다.

[9] 여기에서의 이러한 단도직입적인 거절은 Brown & Levinson(1978)의 체면 협박 행동(Face Threatening Acts: FTAs)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유대관계(solidarity)에서 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체면과 공손에 대해서는 Bargiela-Chiappini(2003, Pizziconi(2003))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한국어에서의 체면은 Kang(2001)에서, 유대관계는 Shin(1994)에서 거리감(remoteness)로 분석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청은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청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 4.1.3 고치기

고치기가 나타나는 경우는 의사소통자들이 실수했을 경우이다. 보통 의사소통자들의 실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맞춤법이 틀렸을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내용이 틀렸을 경우이다. 맞춤법이 틀렸을 경우에는 거의 무시하고 넘어가는 반면에 내용이 틀렸을 경우에는 정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10]

(13)

| | | |
|---|---|---|
| A | **통과**해여 | <실수> |
| A | 아니 | <실수 확인> |
| A | **통화**해여 | <고치기> |

(13)의 경우 자기 자신이 고치는 경우이다. (13)은 구어의 대화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13)과 같이 고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다음은 자신이 의심하고 상대방이 확인해서 고치는 경우이다. 이것도 또한 구어 대화에서 자주 나타나는 경우이다.

(14)

| | | |
|---|---|---|
| A1 | 지는 갑니다. | |
| A2 | ㅎㅎ | |
| B1 | **영화보러 가기로 했잖아요?** | **<진술>** |
| B2 | **아닌가.** | **<의심>** |
| A3 | **아녀.. ㅋㅋ** | **<확인>** |
| B3 | **중훈씨였구나.** | **<고침>** |
| B4 | 넹... 조심히 들어가세유.. ㅠㅠ | |
| A4 | 네.. 그럴겁니다. | |

다음의 예는 인터넷 채팅이 문자로 하는 데서 오는 특성이라고 볼 수

[10] 맞춤법이 틀렸을 경우 고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을 볼 때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은 구어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종결어미 '~여'의 사용을 맞춤법이 틀린 것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왜냐하면 '~여'의 의미적이고 화용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토의는 다음 논문으로 미룬다.

있다.

(15)

| | | |
|---|---|---|
| A | **메일은 체크했음?** | **＜실수＞** |
| A | **메일 → 메일** | **＜고침＞** |
| B | 답변 보냈잖아어 | |
| A | -_- 저 메일체크안하는거 알믄서. ㅋㅋ | |

(15)의 경우는 화살표(→)를 이용하여 자신의 실수를 고치고 있다.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른 개인적인 성향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의 예 또한 채팅으로 인하여 생기는 실수이다. 즉 일반대화에서는 흔히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16) A: 10개 스크랩 성공!!!
A: 원인 찾았음.. 좀 어이없지만.. -.-;;
B: **앵? 지금 나한테 보낸 거 맞아요??? ＜확인 질문＞**
A: **앗.. ㅋㅋ 죄송.. ＜확인하고 사과＞**
A: 울 회사 개발자가 닉네임이 [별]이라서.. ㅋㅋㅋ
A: ☆ 이거랑 해깔렸음.. -.-;;

(16)의 경우 다른 사람이 실수를 지적하고 깨닫는 경우이다. 닉네임에 있는 별표시(☆)가 같아서 같은 사람인줄 알고 발생한 실수이다. 일상생활에서 모습이 비슷해서 말을 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실수는 흔하지 않다. 하지만 인터넷 상에서는 닉네임이 같을 경우라든가 동일한 아이콘을 사용할 경우 이러한 실수는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치기가 형식고치기라기보다는 내용고치기라는 점에서 구어적인 속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구어와의 차이점은 컴퓨터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드러나고 있다.

### 4.1.4 채팅 닫기

채팅 닫기는 채팅 열기와 마찬가지로 의식적인 것을 볼 수 있다. 채팅 닫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17) (a)

| | |
|---|---|
| A | 네~건강하시구..편지 보낼께요^^ |
| B | 그래~ |
| B | 너도 건강하고... |
| A | 넵~ |

(b)

| | |
|---|---|
| A | 맛있게 식사혀 |
| B | ^^* |
| B | 네 |
| A | 그래 |

(c)

| | |
|---|---|
| A | 그래 점심이나 먹자 |
| B | 그려 |
| A | 들어가 |
| B | 잘 지내 |

(d)

| | |
|---|---|
| A | 내일봐~ |
| B | 넹 |
| B | 안뇽~ |
| A | 안녕! |

일반 대화에서 닫기는 “안녕”이나 “잘 가,” “안녕히 계세요” 또는 “안녕히 가세요”이다. 채팅 닫기에서는 (17)에서 볼 수 있듯이, ‘네’나 ‘응’으로 끝나는 대화가 많았고 ‘안녕’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의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닫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반복하거나 그것에 대응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다음의 채팅 닫기는 위와 같은 의식을 보여주지 않는다.

(18)

| | |
|---|---|
| A | 후달리네요 |
| A | 어제 비타민 다 떨어져서 오널은 비타민도 없어여 -.- |
| B | 아. ㅋㅋ |

(18)의 경우는 회사 직장 동료 사이의 대화로 채팅이 이것으로 종료되고 있다. 이유로 추측할 수 있는 직장 동료이기 때문에 직접 작별 인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경우는 공간을 달리 하기 때문에 작별 인사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의 예는 채팅으로 만나지만 보는 개념을 인식하는 경우이다.

(19)

| | |
|---|---|
| A | 지금 운동하러 나가서 |
| A | 담에 |
| B | 그래 체력은 국력 |
| A | 네 |

| | |
|---|---|
| A | **담에뵐께요** |
| B | 응 |

(19)에서 “담에뵐께요”에서 볼 수 있듯이 구어에서와 마찬가지로 보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채팅 닫기에서는 공간이 떨어져 있는 경우 작별 인사를 하지만, 같은 공간 내에서는 작별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 4.2 온라인 채팅에서 두드러진 특징

이 단락에서는 온라인 채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은 담화화제 생략과 침묵, 음성학적 효과, 대명사, 지시어의 사용, 반복, 코드 전환 등이다.

#### 4.2.1 담화화제 생략

담화화제 생략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흔히 나타나는 경우이다.[11] 그러나 상황이 아니라 문자만으로 이해해야 하는 채팅의 경우에는 담화화제가 생략될 경우 서로 의사소통이 진행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의 예에서 담화화제는 “웹마스터”이다. A는 B가 서로 공감하는 지식이 있다고 믿고 대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상황이 아니라 문자로만 담화화제를 찾아야 하는 B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문자를 보고 이해해야 하므로 상당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볼 수 있다.

(20)

| | |
|---|---|
| A | **(　　) 학원에서 보내온 견적 메일로 보냈어여..** |
| B | 네? |
| A | 6개월 과정 11만원 이구여, 하루에 2강씩 들으믄 3개월에 끝나는데 그렇게 하면 매월 23만원 정도 먹히네여.. |
| A | 박세긴하네여.. 하갸~ 꽁짜는 없으니까여.. |
| B | 머가요? |
| B | 아 **웹마스터** |

[11] 강우순・이지영(1999)에서 밝히고 있듯이 일반 대화에서는 상황으로 인하여 담화화제가 생략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20)의 예를 보면 A는 당연히 B가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학원인지 밝히지 않고 학원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B는 무엇인지 몰라서 하는 반응에도 A는 자신의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B는 대화를 보고 생각하므로 인해서 추측하고 알아낼 수 있었다. 이것은 일반 대화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어떤 학원인지가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담화화제 생략의 경우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보고 인식해야하는 것이므로 구어와 차이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 4.2.2 침묵

일상 대화에서도 침묵의 경우가 있다. 일상 대화의 경우 침묵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채팅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12] 채팅의 경우 메시지가 스크린에 뜨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 채팅의 경우 상대방이 입력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늦게 올라오는 경우에는 기다릴 수 있지만 아예 메시지가 뜨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가정을 할 수 있다.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고 이것으로 인해 불쾌감을 유발할 수도 있다.

(21)

| | | | | |
|---|---|---|---|---|
| 1 | 오전 11:14:27 | A | 어~ 그런게 어딨냐? | <질문> |
| 2 | 오전 11:14:53 | A | 편지 보냈는데 | |
| 3 | 오전 11:14:54 | A | ㅉㅉㅉ | |
| 4 | | | | <침묵> |
| 5 | 오전 11:17:07 | A | 음... 건강은 어때? | <질문> |
| 6 | 오전 11:17:13 | B | 어 | |
| 7 | 오전 11:17:17 | B | 이제서야 되네요.. | |
| 8 | 오전 11:17:19 | B | 좀전에 한참.. | |
| 9 | 오전 11:17:28 | B | 제가 쓴글이 안보내졌어요..-_-;; | |
| 10 | 오전 11:17:33 | A | 어쩐지... | |
| 11 | 오전 11:17:37 | A | 왜 안오나 했지 | |

[12] 일상대화의 경우 침묵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실제 상황에서 다른 일이 일어나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반응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 모든 경우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으므로 고의적이지 않을 경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는 없다고 본다.

(21)의 3에서 5사이에 침묵은 2.5분이다. 그 사이에 A는 많은 가정을 할 수 있지만 B가 계속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하고 바로 B의 답을 받게 된다. 온라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장애로 말미암은 침묵인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경우는 서로의 오해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침묵의 발생이다.

(22)

| | | | |
|---|---|---|---|
| 1 | 오후 4:43:01 | A | 추가가 나올거예요 |
| 2 | 오후 4:43:04 | A | 추가하심 되요 |
| 3 | | | <침묵> |
| 4 | 오후 5:13:06 | B |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일해야 할것 같아서요.. |
| 5 | 오후 5:13:17 | B | 잘 보내시고.. 안녕히 계세요 |
| 6 | 오후 5:13:17 | A | 아직도 일 안했어요? |
| 7 | 오후 5:13:35 | A | 그럴께요~ |
| 8 | 오후 5:13:37 | A | ^^ |
| 9 | 오후 5:14:17 | A |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
| 10 | 오후 5:14:25 | A | 제가 어떻게 가려낼 수가 없었어요 |
| 11 | 오후 5:14:32 | A | 죄송해요... 기다리게 해서 |
| 12 | 오후 5:15:20 | B | 아닙니다... 감사해요 |

(22-3)의 침묵은 30.2분이다. A는 대화가 종료되었다고 생각했으나 B는 지속되는 줄로 알고 오해가 발생한 것이다.

침묵의 경우 컴퓨터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일상 대화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종류의 침묵이 야기됨을 볼 수 있다.

### 4.2.3 음성학적 효과

채팅이 실시간이고 상대방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구어적인 특성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문자로 서로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성학적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물음표를 사용해서 음성학적인 효과를 내었고, 채팅이 구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보인다.

(23)

| | | |
|---|---|---|
| A | 1 | 영훈씨 |
| B | 2 | 오늘 기담가서 먹을래요? |
| A | 3 | 눼.. 앗.. 시켰는뎅.. |
| B | 4 | **아직 주문안했을껄요?** |
| A | 5 | 취소가 될려나 몰라여.. |

(23B-4)는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는 진술문이지만 구어로 말한다면 끝이 올라가기 때문에 물음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비록 자판을 두드려 문자로 전송되지만 구어적 성격을 나타내는 예라고 볼 수 있다.[13]

다음의 예는 질문이지만 말할 때 끝이 올라가지 않는 질문이므로 물음표를 안한 경우이다. 이것도 위의 것과 마찬가지로 구어적 특성을 나타내는 예라고 볼 수 있다.

(24)

| | |
|---|---|
| A | 지금 보니까 정상적으로 서비스 되고 있는거 같은데 모라고 답변하면 **될까여** |
| B | 6시이라면 오후6시요? |
| A | 잠깐 문제가 있었다고 해야 **할까여...** |
| A | 네.. 오후여 |

(24)에서 볼 수 있듯이 말할 때 끝을 올리지 않으므로 질문임에도 물음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문어에서는 질문이면 물음표를 써주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구어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예이다.

다음의 예는 음성학적 효과를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예이다.

(25)

| | |
|---|---|
| A | 칭찬해주세요. |
| B | **두구두구두구두구** (기대중) |
| B | **ㅋㅋㅋ** |

(25)의 예에서 보여주는 것은 구어에서 사용되는 "두구두구두구두구"와 웃음 효과를 나타내는 "ㅋㅋㅋ"와 "ㅎㅎㅎ" 등을 또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13] '아직 주문안했을껄요?'의 물음표는 물음을 위한 물음표가 아니라 추측이나 확인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각적인 기능 연구는 추후에 하기로 한다.

온라인 채팅이 비록 문자를 사용하지만 구어적 영향으로 인해서 질문이 아니지만 끝이 올라가는 경우 물음표를 사용하였고, 질문임에도 자신이 끝을 올리지 않는 질문에는 물음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채팅이 구어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 4.2.4 대명사, 지시어의 사용

대명사나 지시어의 사용은 문어에서는 중의성을 야기시키므로 잘 나타나지 않고 구어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대명사나 지시어의 사용은 채팅이 구어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26)

| | |
|---|---|
| A | **이제** 해도 되요 |
| B | 넵.. |
| A | **오늘**도 **제** 네톤 쪽지를 안보셨나보네요. -_- |
| B | 네.. 아직 로긴 안했어여 |

(26)에서 “이제”와 같은 대명사적 지시어가 사용되었고, “오늘”이나 “제”를 사용해서 문어적이 아니라 구어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7)

| | |
|---|---|
| A | **오늘** 시켜먹는다구요? |
| B | 음.. **12시**에 급여가 들어오믄 나가는게 더 편한데.. 음.. |
| A | 아. **그러고보니 오늘** 월급날이네요 |

(27)에서도 “오늘”이나 “12시,” “그러고보니” 등을 통해서 지시어나 대용어 등이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채팅 대화에서 대명사나 지시어의 표현은 다양하게 많이 발견되고 있다.

온라인 채팅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으나, 시간적으로는 실시간이므로 장소를 나타내는 지시어는 잘 쓰이지 않았으나 시간과 관계해서 쓰이는 지시어나 대명사는 많이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4.2.5 반복

일상 대화에서도 많은 반복이 있다.[14] 채팅대화에 나타나는 반복도 같은

유형과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다.[15] 채팅 대화에서 나타나는 반복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28)

| | | |
|---|---|---|
| A | 아.. **배고파..** --;; | (a) |
| B | **적응안되요**.. --;; | (b) |
| A | **배가고파요**.. --;; | (a) |
| B | 음.. 나가서 잠깐 **뭐좀 드시고 오세요** | (a') |
| A | **편의점**들렸었는데 | (a') |
| A | 아무리생각해도 혼자 **라면**못먹겠더라구요 | (a') |
| A | 그래서 걍 와써요 -_- | |
| B | 음.. 역시 .. | |
| B | 나는 **얼마든지 잘 먹는데** ㅎㅎ | (a') |
| A | 쩝..... ㅠㅠ | |
| B | 넘 **적응 안되요**.. | (b) |
| B | **어제 접속해보니 지식센터 컨텐츠 이빠이 밀려있어서** | (b') |
| B | **오자마자 빡씨겠구나 하고 왔더니** | (b') |
| A | 음 | |
| A | **라면** | (a') |
| A | ㅠㅠ | |

(28)에서는 형식 반복(form repetition)과 의미 반복(meaning repetition)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는 “배고파”라는 것을 “배가고파요”라고 형식 반복을 하고 있고. “편의점,” “라면” 등을 통해서 의미 반복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반복할 수 있는 조건은 B가 배가 고프다는 진술에 반응했기 때문이다. 반면 B는 “적응안되요”라고 진술하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이 없자 다시 반복하고 그래도 반응이 없자 그냥 자신의 얘기를 계속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도 형식 반복과 의미반복이 나타나고 있다.

[14] 전영옥(1998)에서는 한국어 담화의 반복의 기능과 유형 분포에 대해 연구하였다. 기능은 화제와 화제 사이의 의미 결속과 언어 사용자의 의도성으로 구분하였고 화자의 측면에서는 시간벌기, 수정하기, 강조하기, 명확하게 하기, 청자 참여 유도하기가 있으며, 청자의 측면에서는 호응하기, 요청에 응하기, 반응하기, 확인하기 등으로 분류하였다.

[15] Song(2001: 161)에서 전자 담화에서의 반복의 기능은 유형화된 리듬을 통해서 참여하기, 참여적 듣기, 인가하기, 듣기, 유머, 즐기기, 따라하기, 확장하기, 평가하기 등으로 보았다. (The major interactional functions of repetition in electronic discourse include participating, participatory listenership, ratifying listenership, humor, savoring, stalling, expanding, and evaluating through patterned rhythm.)

다음의 예는 일반 구어가 아닌 채팅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29) A: 월급들어와써요!월급들어와써요!월급들어와써요!월급들어와써요!월급들어와써요!월급들어와써요!월급들어와써요!월급들어와써요!월급들어와써요!월급들어와써요!월급들어와써요!월급들어와써요!월급들어와써요!월급들어와써요!월급들어와써요!월급들어와써요!월급들어와써요!월급들어와써요!월급들어와써요!월급들어와써요!월급들어와써요!월급들어와써요!월급들어와써요!월급들어와써요!월급들어와써요!월급들어와써요!월급들어와써요!월급들어와써요!월급들어와써요!월급들어와써요!월급들어와써요!월급들어와써요!월급들어와써요!월급들어와써요!월급들어와써요!월급들어와써요!월급들어와써요!월급들어와써요!월급들어와써요!월급들어와써요!월급들어와써요!월급들어와써요!월급들어와써요!월급들어와써요!월급들어와써요!월급들어와써요!월급들어와써요!월급들어와써요

B: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솨요!~

메신저를 사용하게 되면 (29)와 같은 효과가 가능한데 복사해서 붙이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월급이 들어와서 기쁜 것을 강조하고 그것에 호응하기 위해 이런 대화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16] 언어 유희적인 효과도 있음을 볼 수 있다.

---

[16] 대화에 있어서 규칙이 있는데 그것은 Grice의 격률과 Levinson의 공손(Politeness), 체면(Face), 상관성 이론(Relevance theory) 등이 있다. 익명성이 없는 채팅 대화를 살펴보면 위의 여러 가지 원리를 모두 잘 준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Grice의 격률이나 예의 이론, 체면 등으로는 잘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반복이 될 것이다.

#### 4.2.6 코드 전환

코드 전환은 한 사람 내에서 말의 사용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 전환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어를 사용하다가 영어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이 예이다. 그러나 채팅에 있어서는 업무적인 내용과 개인적인 내용을 나누어 코드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25)의 예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대화의 내용에 따라 코드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0)

| | |
|---|---|
| A | 먼저 보는건 **상관없어여.. ㅋㅋㅋ** |
| A | 중훈씨 디카 신상 순으로 정렬했는데 이미지 없는게 많이 **보여요.** |
| B | **가격비교요?** |

(30)에서 보는 것처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상관없어여.. ㅋㅋㅋ”와 같은 채팅 용어를 사용하지만 업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여” 등의 종결 어미나 “ㅋㅋㅋ”와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31)

| | |
|---|---|
| A | **최대리님, 오늘 스크랩 에러 수정가능하겠습니까..** |
| A | **거그도** 메신저가 안가나.. -.- |
| B | 잘가요? |

(31)에서도 평소에는 직함을 부르지 않다가 업무적인 내용에 있어서 직함을 부르고 깍듯한 존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업무적인 내용이 아닐 경우에는 다시 채팅형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 5. 맺음말

지금까지 온라인 채팅에서 나타나는 구어적인 특성과 온라인 채팅에서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성을 살펴보았다. 구어적인 특성을 살피기 위해서 화행에서 나타나는 채팅 열기, 인접쌍, 고치기, 채팅 닫기 등을 살펴보았고, 온라인 채팅을 살피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담화화제 생략, 침묵, 음성학적 효과, 대명사와 지시어의 사용, 반복, 코드 전환 등을 살펴보았다. 온라인 채팅은 어느 한 특성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특성이 모두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구어적 특성과 문자로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어적 특성과 컴퓨터를 매개로 해서 드러나는 컴퓨터 매개적인 특성이 골고루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2)

| 특성 | | | 구어적 | 문어적 | 컴퓨터-매개적 |
|---|---|---|---|---|---|
| 화행 | 채팅열기 | | 이름이나 호칭의 사용 | | |
| | 인접쌍 | 질문 | 화자 중심 | | 동시 질문과 동시 대답 |
| | | 요청 | 청자 중심 | 다른 문체를 사용해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음 | 요청과 승낙, 거절이 잘 이루어짐 |
| | 고치기 | | “아니”를 사용하거나 해서 구어와 유사한 속성을 보임 | 편집이 가능한 문어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 | 화살표의 사용 → |
| | 채팅닫기 | | 다른 공간에 있으나 구어적인 속성이 강함 | | 이모티콘의 사용 |
| 채팅 특성 | 담화화제생략 | | 상대방과의 공유지식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하는 사람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음 | 듣는 사람은 상황적인 이해를 하지 못하므로 문자로 이해함 | |
| | 침묵 | | 의도적인 경우도 있음 | | 컴퓨터 장애 |
| | 음성학적 효과 | | 구어에서 끝이 올라가는 경우 물음표를 사용 | 문자로 음성적인 효과를 냄 | |
| | 대명사, 지시어 사용 | | 시간 지시어를 많이 사용 | | |
| | 반복 | | 구어적 속성이 강함 | 문어에서는 반복이 잉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볼 수 없는 현상 | 컴퓨터에서의 붙여 복사하기가 가능하므로 과도 반복이 가능 |
| | 코드전환 | | 내용이 직무적인 것인지 개인적인 것인지에 따라 코드가 전환됨 | | |

(32)의 표에서 구어적, 문어적, 컴퓨터 매개적 특성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지만 어떤 특성을 정확하게 하나의 범주로 제한해서 볼 수는 없다. 온라인 채팅에서의 모든 현상은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결합해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강옥미. 2004. 해체주의 관점에서 본 통신 언어의 언어유희. 기호학연구 Vol. 16. 81-113.

강우순・이지영. 1999. 한국어 담화에 나타난 화제 생략. 언어연구 17. 119-136.

구현정. 2001. 통신언어-언어 문화의 포스트모더니즘. 국어학 39. 251-277.

구현정. 2002. 말실수의 유형 연구: 대중매체 텍스트를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제 10권 2호. 1-24.

권연진. 2003. 사이버 공간의 채팅문화와 언어적 특성. 인문사회과학논총 제 4권. 1-32.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 연구소.

김성규. 2003. 인터넷 通信의 保守的 表記에 관한 연구. 어문연구 제 120권. 7-31.

노형남. 2000. 한국어 채팅 표현에 관한 연구. 사회언어학 제 8권 2호. 107-137.

박동근. 2002. 통신언어의 유형에 따른 언어학적 기능 연구. 한말연구 제 10호. 1-22.

박동근. 2003. 통신언어의 생성 방식에 따른 생산성 연구. 한말연구 제 12호. 41-59.

송경숙. 2002. 컴퓨터-매개-커뮤니케이션(CMC)에서의 협력원리와 예의원리: 영어 인터넷 채팅(IRC)을 중심으로. 새한영어영문학 제 44권 2호. 641-660.

송경숙. 2002b. 한국어와 영어 인터넷 채팅에서의 프래임(frame) 분석. 텍스트언어학. 73-105.

송경숙. 2003. 한국어와 영어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에서의 남성과 여성간의 성(gender) 역학. 사회언어학 제 11권 3호. 161-185.

전영옥. 1998. 한국어 담화에 나타난 반복표현 연구: 유형, 분포 및 기능.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조동욱, 이현경. 2003. 인터넷 상에서 쓰이는 통신언어에 대한 분석 및 문제점 해결 방안. 한국콘텐츠 학회. 79-83.

Baik, Jonghak. 1998. Aspects of Englishization in Korean Discourse. *Sociolinguistics* 6-2. 265-283.

Bargiela-Chiappini, Francesca. 2003. Face and Politeness: New (Insights) for Old (Concepts). *Journal of Pragmatics 35*. 1453-1469.

Crystal, David. 2001. *Language and the Internet*. Cambridge University Press.

Finegan, Edward. 1994. *Language: the Structure and Use*. Harcourt Brace.

Green, Georgia. 1989. *Pragmatics and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Lawrence

Erlaum Associates, Publishers.

Grice, H.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eter Cole and Jerry L.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New York: Academic Press. 41-58.

Herring, Susan. 1996. Two Variants of an Electronic Message Schema.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Linguistic, Social and Cross-Cultural Perspective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Johnson, Mark. 1987. *The Body and the Mind: The Bodily Basis of Meaning, Imagination, and Reas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Johnstone, Barbara. 2002. *Discourse Analysis*. Blackwell Publishers.

Kang, Kil-Ho. 2001. Korean's Politeness Strategi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7-27.

Levinson, Stephen C. 1983. *Pragma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izziconi, Barbara. 2003. Re-examining Politeness, Face and the Japanese Language. *Journal of Pragmatics 35*. 1471-1506.

Renkema, Jan. 1993. *Discourse Studies*. John Benjamins.

Shin, Hyon-Sook. 1994. Remoteness & Politeness in Korean (Language). *Journal of Korean Studies*. 39-64. Sang Myung University.

Song, Kyong-Sook. 2001, "Repetition in Korean and English electronic discourse," *Discourse and Cognition* 8(1), 161-194.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30-701
E-mail: woosoonkang@gmail.com

접수일자: 2005.11.03
게재일자: 2005.12.16